

전북 미래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우수'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 사업단, 과기정통부 최종평가서 연구 목표 달성도·기술적 완성도 등 성과 인정

전북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 과학기술 프로젝트가 정부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 사업단(M-PID 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연구 목표 달성도와 기술 완성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했다.

전북도는 지난 2022년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한 해당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주관 기관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기획관리기관인 전북테크노파

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북도 M-PID 사업단'을 구성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6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왔다.

사업단은 리빙랩을 활용한 경제동물 장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산성 개선 및 탄소 저감용 가능성 복합제제 사업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생물체 내부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생태계를 의미하며, 이를 활용해 경제동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특히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비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추진됐다.

사업단은 최종평가에서 연구 목표 달성도와 기술적 완성도, 사업화 가능성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개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점과 함께 기술이전, 제품화, 매출 창출, 고용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기술적 성과도 눈에 띈다. 사업단은 사업화 가능한 유용 미생물을 확보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데이터를 구축·분석했으며, 면역 증진과 염증성 장 질환 개선 소재 발굴 및 실증을 통해 사료첨가제용 기능성 소재 7건의 제품화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향후 대량 생산과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저탄소 한우 브랜드인 '로카카우'를 출시하고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가,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구 성과를 전국 축산 농가와 공유했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경제동물 혁신 분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단장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탄소 배출 저감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100일

이용차량 누적 100만 대 돌파... 전북권 핵심 교통망 안착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 100일 만에 누적 이용 차량 1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전북권 주요 교통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교통량이 개통 100일째인 지난 1일까지 누적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통계 이트빌 일평균 교통량은 북김제 4,598대, 남전주 3,657대, 새만금 1,838대 순으로 집계됐다.

주중과 주말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주말 교통량은 주중 대비 11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을 중심으로 새만금 관광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전북지역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본부 관할 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개통 전 2,449만7,103대에서 개통 후 2,660만8,439대로 약 8.6%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개통 100일을 기념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교통안전 퀴즈대회와 화물차 무상 점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일까지 퀴즈대회에는 206명이 참여했다. 또 화물차 65대를 대상으로 후방 반사판 교체 등 경정비를 포함한 무상 점검이 이뤄졌다.

/오상근 기자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

중기부,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정책자금 특별 만기 연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물류 지원과 정책자금 만기 연장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전자산업협동조합, DHL코리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와 애로 사항을 접수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총 80개 기업 가운데 64건의 피해·애로 및

우려 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운송 차질이 71%로 가장 많았고, 대금 미수금 38.7%, 물류비 증가 29%, 출장 차질 16.1%, 계약 보류 1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중동 지역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 중동 바이어 방한 취소, 선적 수출보험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 운송비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보증공급 등 지원책에 더해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 물류바우처'를 새로 도입

할 계획이다. 긴급 물류바우처는 물류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해 기업들의 물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고환율 상황을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특별 만기 연장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원금의 거치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17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한다.

전북농협, 농촌 다문화가정 17가정 모국 방문 지원

전북농협이 농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모국 방문 지원에 나섰다.

전북농협은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17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마련했다.

이날 진안농협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과 김문홍 진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전북을 대표해 진안농협이 추천한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도 함께해 모국 방문 왕복 항공권과 체제비 등을 전달받았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경제 도약 필수 인프라"

전북상협, 사업 추진 촉구

전북지역 기업인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회장 김정태(사진))는 최근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서명운동에 전북지역 기업인 약 1,5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으며, 전북



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명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전북 산업과 관광, 투자 유치에 이끔 핵심 경제 인프라"라며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같은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지역 기업인들이 한목소리로 공항 건

설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공감대를 보여줬다. 기업인들은 이번엔 취임된 서명부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항소심은 오는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상근 기자

순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분 착공

전북개발공사가 순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분 공사를 착공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3일 순창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분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315억 원을 투입해 길이 7.6km, 폭 8m 규모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부 구간은 우기 때 침수되는 경우가 있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스마트 농기계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2026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참여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역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내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2개월 동안 세부 과제당 최대 7억7천만 원의 연구 개발비가 지원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